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9. 29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원예작물과장	강상훈	☎ 760-7450	
	채소연구팀장	오명협	☎ 760-7451	
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	

제주 ‘대사니’ 우량 씨마늘 5년 이어 심어도 생산성 안정

- 4~8세대 생육·상품수량 큰 차이 없어… 주아 활용 가능성도 확인 -
- 2027년까지 검정 이어 농가 걱정 이용 기준 마련 -

□ 제주에서 자체 육성한 마늘 품종 ‘대사니’의 우량 씨마늘을 5년간 이어 재배해도 생육과 상품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‘대사니’ 우량 씨마늘*을 농가에서 몇 차례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4년부터 세대별 생산성 검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. 연구는 2027년까지 이어진다.
- 마늘은 수확한 일부를 다음 해에 심을 씨마늘로 다시 사용한다.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여러 해 재배하면 바이러스 감염이 늘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어 걱정 사용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.

* 씨마늘: 마늘을 번식·재배하기 위해 심는 마늘쪽(인편)이나 마늘 구

□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, 생장점 배양으로 생산한 ‘대사니’ 우량 씨마늘은 4세대부터 8세대까지 생육과 상품수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.

- 여기서 ‘세대’는 우량 씨마늘을 해마다 증식해 이어 재배한 단계를 말한다.
- 2026년 수확 결과 4~8세대의 상품수량은 1,000㎡(10a)당 1,318~1,498kg으로 나타났으며, 전체 수확량 가운데 상품으로 분류된 비율도 95.6~99.8%를 유지했다.

□ 꽃대 끝에 생기는 작은 번식체인 ‘주아’ *도 여러 해 이어 씨마늘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.

○ 공급받은 씨마늘에서 주아를 채취해 이듬해 씨마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5회 반복한 결과, 생육과 수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씨마늘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주요 바이러스 3종**을 검사한 결과 일반 재배환경에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.

* 주아(珠芽): 마늘의 꽃대 끝에 형성되는 작은 번식체로, 종구를 증식하거나 갱신하는 데 활용

** 검사 바이러스: 양파황화위축바이러스(OYDV), 리크황화줄무늬바이러스(LYSV), 마늘 일반잠화위축바이러스(GCLV)

□ 농업기술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농가가 공급받은 우량 씨마늘을 5회까지 이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.

○ 다음 해 재배용으로는 무게 5~6g의 우량 씨마늘을 골라 남겨두고, 필요한 경우 0.5g 이상의 주아를 채취해 씨마늘로 활용할 수 있다.

○ 농업기술원은 2027년까지 우량 씨마늘과 주아의 세대별 생산성 검정을 계속해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□ 김태균 제주도 농업기술원장은 “이번 연구를 통해 농가가 우량 씨마늘을 여러 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세대별 생산성 검정을 이어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씨마늘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”고 말했다.